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은 작은 변화로부터!



이철형
교장선생님

동산학원을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산학원이 개교할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서 신사 참배, 황궁 신민의 서사 외우기 등을 강요하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창씨 개명을 강제하며 민족 정신을 말살하던 시기여서 일본 당국에 의해 설립된 공립계 학교 또는 실업계 학교는 맥을 못 추던 때였습니다.

동산학원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율목동에 위치한 무덕관에서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중등교육 시설로서 처음으로 인천에 문을 열게 되었으나, 재단이 없는 학교는 폐쇄하겠다는 일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승우 선생님께서 '학교를 세우고 민족혼을 찾는 것만이 겨레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아셨노라. 이 일을 거울 삼아 겨레의 햇불이 되련다.'라고 결심하신 후, 토지 30만여 평과 현금을 선뜻 기증하여 초대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로써 우리 학교는 일제로부터 굳건히 지켜질 수 있었고, 그렇게 오늘날의 사학의 명문 동산학원은 탄생하였습니다. 8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켜온 우리 학교가 앞으로도 명문사학으로서 80여 년 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해 2021년을 원년으로 삼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문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3여 년 전 이견희 회장이 그를 수뇌부들에게 지시했던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 선언'의 요체인 '변화와 혁신의 창조적 마인드'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삼성에서는 불량 무선전화기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무선전화기 사업부는 품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완제품 생산을 추진하다가 제품 불량률이 11.8%까지 올라가는 문제에 봉착했습니



다. 그러자 이 회장은 고객에게는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수거된 제품을 소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을 내놓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냐는 말이에요.”라고 하던 이 회장의 기업 혁신의 정신이 국내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안주하며 구태의연한 관행과 의식에 젖어 있던 임직원들을 일깨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발했다고 봅니다.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변화’하게 하는 것인데, 특히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도 ‘생각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방법, 학생들의 학습방법,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자세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발전은커녕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존립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자존감이 높은 학생을 양성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수학, 과학을 기초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에 대한 창조력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업과 학생지도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업의 전문가가 되어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수업이 아닌, 토론 중심의 탐구학습과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피드백, 토론·토의 수업을 적절히 섞어 내실 있고 유익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도 변해야 합니다. 고교 시절은 선생님의 가르침, 새로 습득한 지식, 친구와 선·후배들과의 만남, 독서와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며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고,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의 잘못된 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계에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계의 일인자가 되었던 빌 게이츠는 “내가 살던 마을의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더불어 창의적인 산출물을 낳고, 독서와 토론은 부수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가져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자체가 지향하는 것은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천 동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동구의 유일한 일반계 고교인 우리 학교가 명문고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건전한 교육활동 참여 역시 학교 교육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계시지만, 일부 본인의 아이에 대한 과잉 욕구와 그릇된 정보에 얽매어 지도에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입시제도의 변화, 자녀의 학업 상황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진학문제나 생활지도 면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조처로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님들, 일부 그릇된 정보 분석에 의한 외부 기관의 안내만 믿고 선생님을 불신하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학부모들께서 만족하시는 '오고 싶은 동산, 참여하는 동산'이 될 수 있게 생각의 변화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족사학이자 창의융합형 학교인 동산고등학교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입학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동산문화> 제작에 애쓴 정나라 선생님과 교지편집반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